尹정부 경제·안보라인 윤곽…비서실장 인선은 난항

18개 부처 장관 10일 내 발표
경제 추경호·최상목·김소영
안보 김성한·박진 후보군 거론
법무, 검찰 출신 인사들 유력
광주·전남 인사 몇명? 촉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새 정부 경제·안보라인의 주요 부처 장관 후보와 대통령실 참모진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사실상 낙점한 한덕수 전 총리의 추천을 받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에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얼마나 중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3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현재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내부 압축이 어느정도 이뤄진 상황이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상당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될 전망이다. 늦어도 10일 이전에 거의 모든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속히 장관 후보를 지명, 윤 당선인 취임과 함께 즉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특히 경제·안보라인을 패키지로 놓고 적임자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대통령실 경제수석, 외교·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 등을 놓고 퍼즐을 맞추듯 빈칸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라인 핵심 멤버로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안보라인에서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 한미정책협의단장을 맡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인선도 관전 포인트다. 법무부 장관에 현역 국회의원을 앉히는데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내부에서 감지된다. 이에 따라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행안부 장관 후보로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실무를 총괄한 윤한홍 의원 등이 꼽힌다.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스스로 "여의도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실력 있는 인물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다. 장 비서실장도 이미 복수의 후보군과 직접 접촉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광주·전남 인사들이 얼마나 중용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전망은 밝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재풀에 광주·전남 인사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당장,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전남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뜻을 이루지 못했고 같은 전남 출신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총리 및 경제부총리 제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대통령실에 기용될만한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의 이름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보수 정권 시절처럼 잘해야 한 두명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기용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총리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 배려를 통한 광주·전남지역 인재들의 등용문이 더욱 좁아지지 않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능력 최우선'이라는 실용주의에 가려 인재풀에서 배제된 광주·전남 인맥이 고사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지역과 능력을 고려한 발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어느정도 경륜과 실력이 갖췄다면 광주·전남 인사들을 오히려 더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초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임기 초반 국정 운영 동력 마련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보다 큰 안목으로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형 내각을 구성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통령 집무실 이전' 300억대 예비비 합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위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실무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오른쪽)와 합동참모본부 건물(왼쪽), 인근 부지의 모습. 양측 실무진은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 원 중 300억 원대 예비비를 1차로 집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예비비 지출 승인 여부는 오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시·전남도당, 7일까지 공천 신청…5월 초 후보자 확정

적합도 평가·면접 거쳐 컷오프
19~20일부터 경선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차 자격 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아 2차 본심사와 컷오프, 경선 등을 거쳐 5월 초까지 지방선거 후보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시당과 도당 공관위는 오는 7일까지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는다.

공모가 가능한 검증 통과자(적격 판정)는 광주 136명·전남 659명이다.

공모 대상은 중앙당이 공천을 맡는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이다.

공모자를 대상으로 적합도 평가, 면접 등 정밀 심사를 거쳐 18일까지 컷오프 대상과 단수·경선 후보자를 추려낼 계획이다.

이어 19~20일께 경선에 돌입한다.

광주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서로 경선을 한다. 전남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순으로 경선한다. 전남에서는 예비후보 수 등 선거구 실정에 따라 컷오프를 거쳐 경선에 오르는 후보가 적게는 2명에서 5명까지 예상된다.

경선 방식은 지난 지방선거와 같이 기초단체장은 국민참여경선(국민 여론조사 50%·당원 여론조사 50%), 광역의원은 당원경선(권리당원 투표 100%), 기초의원은 당의 심사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남지역 기초의원 공천은 일부 선거구의 경우 당원 경선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선 결과는 지역에 따라 22일부터 발표될 전망이다.

전남의 경우 일부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어 후보자 발표 시점은 유동적이다. 시당과 도당은 이달 말까지 후보자를 결정하고, 경선 탈락자 이의제기 심사 등을 거쳐 5월 초까지 지방선거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윤 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방미길

5박 7일 일정…박진 의원 단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3일 오전 방미길에 올랐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미국 조야의 정책 입안·집행자들을 두루 만나 차기 정부와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한미동맹·한반도 문제·동아시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표단은 잠정적으로 5박 7일 정도로 방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를 고려할 때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보이며 의회 지도자, 싱크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이번 대표단이 당선인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메신저'로서의 특사보다는 미국과 실질적 정책협의를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상 특사는 국가수반이 임명해 보내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강기정, 메머드급 선대위 구성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구성하고 선거 행보를 본격화했다.

양 측은 '양강 후보'로 꼽히느 만큼 지역 정치권 인사는 물론 학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청년·여성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3일 경선대책본부 발대식을 열고 선대위 명단을 발표했다.

선대위원장에는 강위원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총괄일정팀장, 나인형 전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주형 한국노총 공공연맹 광주지역 의장,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임길택 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지회장, 정부성 전 조선대 총학생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선대본부장은 강훈렬 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김준하 광주과기원 교수, 신현구 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이영주 전 광주서부교육장, 조익문 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홍경표 전 광주시 의사회 회장이 맡았다. 총괄본부장은 노희용 전 동구청장과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다.

앞서 이용섭 예비후보도 지난달 31일 1차 선대위 명단을 공개했다. 선대위원장에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임우진 전 서구청장, 최영태 전 전남대 인문대학장, 이명자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박재만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인공지능 전문가·청년 창업가 등이 발탁됐다.

분야별 위원장으로 김재석 전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기태 호남대 교수, 이성수 전 광산부구청장, 이경채 전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성한 전 KIA타이거즈 감독, 김익주 광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조정래 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회장과 이성길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맡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